

# 가발회사 실험실장의 소중한 체험

1965년 필자가 대학을 졸업할 때는 외국에 유학할 준비가 많이 부족하였다. 우선 우리 5남매를 키우시느라고 힘에 겨워하시던 교수아버지와 어머니께 대학까지 마치고도 미국 가는 여비등을 달라고 할 여유도 염치도 없었다. 그때는 모두 그렇게 어렵게 살았던 모양이어서 별로 불편하지도 않았었다. 후에 아웅산 희생자들의 삶을 조명할 때 그분들 모두가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고 부모님의 노고가 극히 심했다는 사실과 그것이 대부분 그 시대를 살던 우리들의 모습과 꽤나 닮아 있었다는데서 매우 마음이 아팠었고, 그들의 노력, 재능과 학식, 인품이 그렇게 산화된 것에 대해 지금도 생각할수록 아깝기만 하다.

학교 졸업식 때마다 듣는 '졸업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그리고 '어느 곳에서나 어느 때나 필요한 사람이 되라'는 축사와 가르침 덕분에 유학은 미국으로 선택하였는데 우선 외국어로 영어가 되었고 또 많은 선배들이 미국으로 TA, RA 등의 조교 장학금을 받고 유학을 가곤 하였기 때문이었다. 미국 대학원의 경우 입학허가보다 RA, TA 등의 재정지원이 되어야 유학을 갈 수 있던, 자비유학은 처음부터 아예 생각도 않던 시절이었다.

편도 비행기표에 나라의 외환보유고 사정에 따라 유학생이 갖고 나갈 수 있는 외화 현금규모가 1백달러 남짓이었으니 외국 유학은 큰 모험일 수밖에 없었다.

## 머리카락 탈색·염색 연구

대학을 마치면서 취직자리를 알아보았지만 발급받은 준교사 자격증도 남자선생님을 선호하는 사회 분위기로 인해 쓸모없는 한장의 종이쪽지 일 뿐이었다. 다행히 가발 수출의 활기 속에서 가발회사를 세웠던 친척 어른의 회사에서 실험실장을 맡아 가발의 제조, 즉 사람 머리카락의 탈색과 염색을 맡아 가발제품 생산에 깊이 관여하게 되었다. 대학원에 다니면서 어느 선배의 도움도 없이 학교 도서관의 Chemical Abstract에서 탈색법과 염색법 등을 찾아 실험하고 몇번의 실패를 거치면서 생산하여 미국에 수출까지 했던 가발제조 연구는 실험실에서 현장생산으로 연결했던 첫번째의 소중한 경험이었다.

당시 그 회사 공장에는 사장님의 고향에서 올라온 처녀 아이들 20여명이 얹혀있는 머리털들을 가지런히 고르고 분류하는 작업을 맨손과 빗으로 해내고 있었는데 놀라움과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그렇게 정부의 강한 수출의지가 기업가와 사회 초년생의 서투른 기술과 합쳐져서 마음씨와 손재주가 뛰어난 소녀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었다.

앞으로의 세계는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황인종의 것이 될 것이라던 그 친척 어른은 77년 귀국할 때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작별할 때 1백달러짜리 두장을 쥐어주시면서 미국 가서 돈벌 수 있는 좋은 기술을 배워와서 사업을 같이 하자던 말씀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벤처가 난무하는 요즘은 그 말씀의 무게가 더욱 실감되고 그 말씀을 실행하지 못했던 흘러간 세월이 아쉽다. 유학 전에 인사하러 시골로 가 빈 것이 마지막이 된 팔순이 넘으셨던 할아버지께서는 미국 가서 공부하면서 모르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묻고 또 물어서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완전히 배우고 넘어가라고 가르치셨다. 한학에 깊으셨으면서도 개화에 동참하셔서 신지식을 빠르게 받아들여셨던 할아버지는 그래서 취학 전에 우리 손자들의 한글을 깨우쳐주셨고 공부 잘하는 흐뭇한 긍지를 쉽게 체득하게 해주셨다. 할아버지의 끝까지 파고 들어가는 이러한 탐구정신은 훌훌 단신 멀고 먼 나라로 유학간다는 손녀에게 완전히

1965년 대학을 졸업한 나는 어려운 여건으로 유학의 꿈을 뒤로 미루고 친척이 경영하던 기발공장의 실험실장직을 맡아 사람 머리카락의 탈색과 염색을 연구하면서 대학원에 다녔다. 1967년엔 미국 유학의 행운을 얻어 유학4년만에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왔다. 1977년 귀국할 때는 그분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유학길을 떠날 때 백달리짜리 두장을 주면서 돈벌 수 있는 기술을 많이 배워와 사업을 같이 하자던 말이 지금도 생생하다. 벤처가 난무하는 요즘 그분 말씀의 무게가 더욱 실감이 난다.



吳世和

〈한국화학연구소 응용화학연구부장/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명예회장〉

익혀서 많이 배우고 오라고만 당부하  
신다. 손자와 손녀를 구별 얹으시고  
마음의 지주가 되어주셨던 일이 그렇  
게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음  
을 이제 다시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  
다.

### 유학 4년만에 박사학위 받아

1967년 8월 유학갈 때는 5·16 이후 '잘 살아보세'를 외치며 모두가 바빠 하던 시절이었다. 월남전에 파병해야 했고 총 무역액 1억달러 달성이 큰 사건인 가난한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 대열로 들어가려고 허리띠를 졸라매던 보리고개에 배고파 하던 때였다. TA로 받는 월급이 남아 집에 얼마쯤 송금을 했고, 전화료는 너무 비싸서 부모님께는 값싼 봉합업서의 편지를 자주 쓰면서, 생전 처음 받아보는 어머니의 편지가 소중한었다. 일년만에 절약해서 샀던 첫 차 Galaxie 500은 사고가 나더라도 안전해야 한다고 결정한 6인승의 대형 승용차였는데 그 덕분(?)에 남학생들과 가까이 사귄 수 있는 기회가 원천봉쇄된 것은 아닌지...

학교 다닐 때는 박사를 속히 받아내는 것이 최상의 목표였다. 혹 성적이 모자라 환송받고 떠난 여의도로 돌아 가야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공부

에만 몰두했다. 4년만에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그때 왜 그렇게 서들렀는지 지금도 후회스러워서 기회있을 때마다 후배들에게는 여행도 많이 하고 사람들도 넓게 사귀고 또 여름방학 때는 회사들에서 여름 일자리를 찾아 일도 하고 사회도 배우도록 충고하곤 한다. 이러한 과정은 졸업 후의 취업을 쉽게 하고, 전문가로서의 안목을 갖추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유기화학을 공부하고 받는 학위증은 Ph.D., 철학박사이다. 유기화학이나 화학 뿐 아니라 인격체로서도 일정수준 이상의 높은 성취를 인정하고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취업하면서 어린애 수준의 영어를 벗어나야 하겠다는 생각도 이 때 들었고 시사문제와 문학예술에 대해서도 어느 만큼의 이해는 있어야 할 것 같아 시간을 할애하였다. 박완서선생의 「나무」이 인상 깊었던 것도 이 때였다.

### 배운사람들의 업(業)

식자우환, 배운 사람들은 걱정이 많기 마련일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고르게 배우고 같은 능력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함께 생각하고 살기 힘든 세상을 함께 의논해가며 살 수 있으리라. 그러나 아이들의 부모가 되었

거나, 집안의 어른이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재능을 많이 타고났거나, 사회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지도자로 인정받았다면, 보다 못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안을 그만큼 더 걱정하며 마련해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뛰어나게 우수한 선비들이 혼자만 돌아앉아서 학문을 즐기는 것이나 스스로만 잘 살기 위하여 재산모으는데 몰두한다면 나이 어린 동생들과 늙어 약해지신 부모님을 모른 척하는 만아들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지금이라도 어려운 우리 사회를 물심양면으로 이끌어갈 역할을 맡아 서둘러야 하는 것이 학문을 하는 사람들, 보다 능력이 있는 지식인들의 과업이어야 할 것 같다.

자존심 하나는 끝내주게 높은 사람들, 그래서 한번의 마음의 상처가 좋은 관계를 끝내게 할 전문직 고학력자들 간에 평가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과소평가하고 배제하는 작업이 표준절차처럼 되어버린 현실이 안타깝다. 어서 속히 우리 사회의 지식인들이 공동의 선한 목적에 자신의 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힘을 합하여 위태위태한 우리의 경제와 사회기강을 바로잡아가기를 새해를 맞으며 간절히 기원한다. ㉞